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소비자운동

- 물질의 풍요로부터 마음의 풍요로 -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1997-11-11

녹색소비자운동 녹색소비자연대

75.8.24

1. '97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 사례발표의 의의

1972년 스톡홀름에서의 유엔인간과환경회의를 필두로 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환경과 개발회의를 비롯한 크고 작은 환경관련회의들이 국내외적으로 빈번하게 개최되고있는가 하면 CFC사용을 규제하는 빈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와 기후변화기본협약을 포함하는 수많은 국제협약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서의 <의제21>이 만들어졌는가하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문제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환경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공개한 <환경 복지구상>과 환경부의 모범적 환경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있는 <환경비전21>등의 장밋빛 구상이 연달아 발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질, 대기, 생태계오염 및 훼손 등의 환경 파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가해자이며 피해자이고 관리자인 지구시민과 지역사회 주민 개개인의 환경문제意識이 행동실천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이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1996년 3월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89.8%와 전문가 95.3%가 오늘의 세계문제로 환경문제를 꼽을 만큼 환경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96년 11월에 실시한 <서울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보면 서울시민의 87.7%가 환경교육 또는 환경관련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고 있는데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의식과 실천이 연계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우리만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난 6월 23일~27일에 뉴욕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5>로 불리는 유엔환경특별총회의 리우회의 이후 5년간의 <의제21>의 실천성과평가에서 특히 부진했던 과제로 제4장에서 제시하고있는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양식에서의 전환이 꼽혔다. 즉 개개인의 실천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녹색소비자연대가 우리나라 환경운동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시민운동체들이 각자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의 사례발표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천운동의 실상을 파악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실천운동의 성과를 높이려는 시도는 큰 의의가 있다.

II. 21세기의 삶의 질

지난 4월 6일로부터 1000일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서기 2000년은 이른바 또하나의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해로서 인류에게는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세대로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열 것인가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세계는 눈앞에 다가선 새로운 100년을 ①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하여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기로 ②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화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③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늘의 역사는 낡은 세계질서가 한계에 봉착해 붕괴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는 새로운 시기에 처해있다. 역사의 전환점인 21세기에 인류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구환경보전>이라고들 한다.

폴 에킨즈(런던대학 교수)의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보면 오늘의 세계의 당면과제로 ①군사화와 전쟁의 위협 ②빈곤 ③인권탄압 ④환경파괴의 해결을 들고 있다. 그는 이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있으며 환경과 직결되어있어서 그 해결은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전쟁은 빈곤과 환경파괴 그리고 인권탄압을 불러일으키고 환경파괴는 빈곤의 원인이 되는가하면 빈곤해결을 위한 개발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삶의 질이란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온 삶이 물량적이며 경제성장위주였다면 앞으로의 삶은 질적인 것으로 쾌적한 환경 그리고 더불어 사는 정신을 토대로 한 공동체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인간적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을 말한다.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과 직결된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깨끗한 자연환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환경 그리고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것 등으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보다 자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처해있다. 규모와 관계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처해있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생활기반을 뒤흔들어 경제위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민생과 민복과는 거리가 먼 권력게임에 매몰되어있는가 하면 사회는 각양각색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로 중병에 들어있으며 환경은 날로 심각해져 우리의 삶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각박한 상황에서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거나 삶의 질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는 것을 혹자는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음직하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삶의 질의 추구는 지난날의 다소비가 미덕, 소유가 행복, 나만이면 된다는 등의 사고에 기초한 삶의 질이 아니다. 경제를 살리며 지구환경을 살리는 천연자원을 절약하는 생활,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생활, 생명을 보다 귀중히 여기며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알고 미래세대를 염려할 줄 아는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삶의 질 추

구는 오늘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환경위기 등의 근본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비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국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 전면수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근본적인 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물질의 풍요로부터 마음의 풍요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의 단계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만 하는 단계에 온 것이다. 그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III. 녹색소비자운동(녹색생산자운동)의 필요성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21>의 제4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산과 소비양식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고갈과 자정능력의 마비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지나친 인간활동이 지구능력의 유한성의 정도를 넘고있어서 순환기능을 파괴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일어난 금세기 최악의 엘니뇨 현상에 의한 인도네시아의 산불, 중국 북부와 북한, 뉴질랜드의 가뭄(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 페루, 칠레, 중국 남부의 홍수, 미국 록키산맥의 폭설, 그리고 콜롬비아의 어획량 감소 등이 바로 지구의 순환기능의 교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기상청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삼한사온의 겨울날씨가 올해는 10한10온의 이상기후가 되어 많은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이것도 엘니뇨 현상에 의한 것이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지난 200년간의 인류의 잘못된 생산과 소비양식이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빈부의 격차 문제 등이 지구환경파괴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하나는 오래 전부터 문제시되고있는 <산업공해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근래에 크게 부각되고있는 <지구환경문제>이다. 전자는 지역적인 문제 또는 특정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일과성인 현상이다. 그에 비해 후자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고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존속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데 그 차이가 있다.

산업공해의 경우는 가해자=기업, 피해자=일반인 등의 도식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의 경우 모든 사람이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동시에, 관리자이다. 그것은 생활인인 모든 사람들은 생산 및 소비 양식과 관련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양식이 동시에 문제되는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 극복에는 다양한 대처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세대인의 생산과 소비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원인이 분별없는 이윤추구와 소비미덕에 터잡은 사회풍조와 인간의 끝없는 편이추구의 욕망과 나만이면 된다는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편리함과 풍요함을 선호해 <전기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는 80%의 지구자원을 쓰고 있는 세계인구 20%의 다소비층의 생활수준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오늘의 물문제, 공기문제, 먹거리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오존층 파괴, 산성우, 지구온난화 등이 경고되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우리의 생산과 소비양식의 획기적인 변혁 없이 그 해결은 불가능하다. 녹색소비자운동과 녹색생산자운동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생산과 소비 양식의 개혁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이다. 발생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 어려움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정에서 전기한등, 물한컵 아끼는 것, 쓰레기를 줄이는 것, 사무실에서 종이한장 아끼는 것, 사무기기를 아끼는 것, 생산현장에서 자원을 아끼며 폐기물을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 생산품은 내구성을 강하게 하며 폐기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작은 실천을 일상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활형편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삶의 질을 회구하기에도 이르렀다. 소득가설에 의하면 환경문제는 국민소득이 5000불 이상일 때부터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된다고 한다.

생산과 소비 양식의 전환의 필요성은 비단 환경문제해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IV. 녹색소비자의 생활양식

녹색소비자의 생활이란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생활양식으로서 덜 쓰고, 덜 버리는 생활양식이다.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환경을 걱정하는 녹색소비자들의 삶의 지혜로서 계속 개발되어 전파되어야 한다. 그 일반적인 형태의 예를 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 Check)을 하는 생활이다. 에너지절약, 물질약 및 재사용,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활용, 적정량의 물질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녹색소비생활은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시작된다. 구입하는 물건에 사용된 자재의 채취과정,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을 따져보며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폐기시에 재자원화가 가능한가, 오염원이 되지 않는가 등을 고려한다. 식품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생산되어서 가공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녹색소비자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외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기금모금을 겸하고 있는 자원 재사용을 위한 중고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가와 중소도시에서 성업중이다. 그곳 사람들의 중고품사용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러한 상점들이 모두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은 그 나라의 국민의 공익을 위하는 인식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어서 모범이 된다.

다른 나라의 녹색소비자들은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이웃간에 공유하고 있다. 물건의 최종폐기는 우리 녹색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리수거해서 재자원화하고 있으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품질이나 외양에 상관없이 재생제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녹색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외국에는 이미 그런 생활정보를 담고있는 녹색구매지침이나 녹색소비지침과 같은 다양한 출판물 또는 홍보물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되어 녹색소비자들의 녹색생활지침구실을 하고 있다. 녹색소비지침에 관한 출판물은 우리나라에도 더러 번역되었거나 우리나라 녹색주부들의 실천경험이 묶여진 책들이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녹색상품에 대한 구매지침서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지금 형편에서 보면 녹색구매정보는 정부와 기업과 큰 환경운동체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까지는 녹색소비주부들의 상품평가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

V. 녹색생산자의 생산양식

〈환경산업〉이라는 말의 사용이 일반화된것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환경산업이 21세기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전망되면서 발전된 국가에서는 이 산업을 신중산업으로 발족하거나, 환경을 고려한 신제품의 생산과 새로운 기술개발에 열중하기에 이르렀다.

세계가 직면한 근래의 경제불황으로 그 열기가 위축된 것같이 보이지만 환경산업의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소비자의 환경보전의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는 60년대 후반~70년대 중반의 〈공해방지시대〉의 산물인 환경보전은 경제성장과 배치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환경보전시대〉인 지금은 환경보전이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에 따라서는 환경보전을 경제성장에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감인 것은 우리의 기업은 아직 환경산업의 추진이라기보다는 공해방지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환경산업은 고도성장기의 〈공해방지형 산업〉과 유흥과동시기의 〈자원절약형 산업〉 등으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며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두 가지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하나는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형 산업 또하나를 “Re”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새로운 산업이다.

“Re”산업이란 수선(Repair), 재사용(Reuse) 그리고 재활용(Recycle) 등의 두분자에서 따온 말이다. 생산품의 수명을 최대화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생산양식의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90년도 후반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21세기의 기업의 성장조건은 하나는 바로 녹색소비양식에 따르는 제품생산과 기술개발 그리고 기업경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환경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국내소비자의 요구도 문제려니와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제교역에서의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녹색생산과 경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녹색생산은 녹색소비자가 견인해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녹색소비자들은 의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수요자의 소비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공급측인 기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소비와 폐기물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구조마련, 재활용을 고려한 생산, 환경친화적인 소재사용, 제품의 개발 등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에 등장한 생애주기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방법이 생산품을 원자재의 입수로부터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그리고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을 고려하는 생산양식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방법이 녹색소비자의 물품의 선택기준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생산품의 품질인증제도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의 그린셀(Green Seal), 독일의 푸른천사(Blue Angel), 일본의 에코마크(Eco-Mark)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5년 전에 만들어져 현재 <환경마크>라는 이름으로 녹색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녹색소비자들은 환경산업체들이 보다 많은 생필품(현재는 원자재 생산이 다수)을 환경마크상품으로 생산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유경제 그리고 시장원리하에서는 기업의 생산성효율이 중요하며 값싸고 질 좋은 물품을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판매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환경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환경대책이 뒤쳐지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환경경시로 인한 환경파괴는 곧 기업활동의 기반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며 결국은 경제발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물 부족으로 산업체의 조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그런 미래를 짐작해야 한다.

지구환경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기업운영이 가능한 상태일 때 이러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기업이 지속가능해지며 소요비용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VI.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의 활성화

일본에서 발간된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18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면서도 시정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한가지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한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러나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녹색소비생활실천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 글의 모두에서 말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을 위한 실천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견해는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인간의 소비양식의 전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접근이 있는가 하면 과학기술로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후자인 경우 70년대까지의 산업公害문제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해결이 과학의 힘으로만 가능한가 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답이 내려진다. 과학기술만능 또는 기술낙관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더 큰 재앙을 잉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는 어느 개인이, 어느 단체가, 어느 기업체가, 어느 지자체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느 부서가 독자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 서로 연계되어있는 총체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엄두가 나지 않는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 또는 지구환경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하나 그 해결의 실마리는 지구시민 또는 지역주민 개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실천에 옮기는데서 풀리게 되어있다는 것을 앞서 거듭 말한 바 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이 환경친화적 또는 녹색소비 등을 말로는 쉽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직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녹색소비생활에는 불편이 따르고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부담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경 그리고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맑은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는 격이다.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불편과 소비억제 그리고 사육억제 등을 감당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체질화(?)된 풍요함, 편리함, 욕심대로의, 나의 주머니사정이 허락하는 한, 돈이 벌리는 것이라면, 목전의 보신을 위하는 일이라면 등등의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시적인 자국으로 결심했다가도 따라오는 문제들로 혼자서는 지속성 유지가 어렵다. 나 하나쯤 또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겠냐는 등의 자기과소평가와 무력감은 실천운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점들로 미루어볼 때 오늘의 녹색소비자포럼에서 발표예정인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사례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그 사례들이 녹색소비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주변에 혼자서가 아닌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하면 된다〉는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더 다양하고 많은 사례들이 방방곡곡에서 시도되어 발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관심 해야 할 부분은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바람으로 일으키는 일이다. 운동의 활성화방안은 앞으로 계속 모색되고 개발되어야한다. 단지 기본적인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의 연합체(협의체 또는 연대) 구성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은 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총론적인 환경운동과는 달리 지역에서 소집단들이 벌이는 아주 구체적인 과제로 세분된 특화사업(쓰레기, 대기, 물, 먹거리, 녹지, 자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화사업의 특징은 하나의 과제에서의 실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성과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기대할 수 없는데 있다. 문제제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서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운동이다. 최근의 환경관련 국제회의에서 환영받는 운동사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개별단체가 하는데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에 힘이 될 것이다.

연합체의 기능으로서는 녹색소비생활실천을 위한 보다 다양하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그 실천성과를 취합해서 발표하므로 하면 된다는 성취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연합체가 가지게 될 힘은 마침내 목전의 이익 또는 무관심이나 무사안일에 안주하고 있는 생산 및 유통업체와 각급의회 그리고 각급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즉 녹색소비자가 녹색산업, 녹색정책을 견인해내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환경을 그리고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② 녹색생활문화창출 및 정착노력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사회의 기본원칙의 〈황금률〉은 이 시점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들 한다. 이것은 현세대가 마지막 세대인양 지구자원을 남용하고 있는 물량적이며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감안하고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생활의 실천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꾸어쓰고 다시쓰는 자원절약의 생활양식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바로 처리하는 생활양식이 문화로서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마음의 풍요를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은 가치관의 전환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치관은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관의 기반이 되는 윤리관은 일상적인 건전한 생활결단과 실천에서만 형성된다. 패러다임 전환이란 고통을 동반하며 그 진전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국에서는 벌써 시작된 운동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나 <단순한 생활이 아름답다> 등의 운동이 그 예가 된다. 덜쓰고 덜버리는 생활이 미덕이라는 인식이 다소비미덕의 풍조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살림살이의 분수가 호주머니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유한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친 것이다.

얼마전 화제가 되었던 백화점에서 어린이가 수십만원짜리 장난감을 100만원짜리 수표로 사려고 했을 때 판매원이 어머니에게 확인전화를 하자 그 어머니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라고하며 호통을 쳤다는 일이 있었다. 며칠전 신문에는 초등학교 학생의 생일잔치비용으로 100만원을 썼다는 기사도 있었다.

그러한 무분별한 소비풍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소비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예가 서울 YMCA가 금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녹색가게운동을 비롯해서 옷은행 운영, 각양각색의 아나바다운동, 자치체별의 자원재활용센터운영, 알뜰장터, 버룩시장운영, 쓰레기바로처리하기, 에코가족운동, 농도불이직거래운동, 대중교통이용하기운동 등이다.

상품의 양산과 가격과괴현상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시장구조와 유행에 민감한 생활풍조에서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오래 쓰도록 권장한다는 일이 쉽지않다. 그러나 알뜰한 실속과 녹색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빌려쓰고있는 자연환경을 그들도 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하는데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가치와 보람을 느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검소한 생활문화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얼마전까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끌어온 생활양식이다. 오늘의 윤리적인 생활양식인 소비억제문화는 우리들의 집단적인 노력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발굴하고 재생시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앞당길 수 있다.

녹색소비문화는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생활대안문화로서 정착되어야 한다. <덜쓰고 덜버리는 생활이 아름답다>는 사회풍조가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사찰 단위에서부터 이루어져 퍼져나가야 한다.

③지방자치체의 <쾌적한 내고장 만들기>와 연계

환경문제해결은 각자가 선 자리에서 환경친화적인 실천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살고 있는 내 고장을 녹색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가능해진다. 사회구성원 개개인과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유엔이 <의제21>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5년 6.27 지방자치선거이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자치체마다 쾌적한 내 고장 만들기 계획인 <지방의제21>을 만들거나 만드는 중에 있다. 이 과제는 지역주민, 지역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 지역주민이 지역기업과 지방정부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녹색소비문화창출을 보다 용이하게 그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데에도 의미가 크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환경보전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이 지역이 작을수록 대책수립이 용이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이어서 실천과급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녹색지역사회구성원은 참여민주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지방자치=시민자치> 그리고 <지방자치=환경자치> 실현에도 기여해야 한다.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이 지방자치단위의 쾌적한 내고장만들기인 <지방의제21>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만들어진 그 계획서가 하나의 문건으로서 사장되거나 휴지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가 아는 대로라면 <국가의제21>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나 <지방의제21>을 만들어놓은 지방정부들이 그 실천모델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주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모든 실천운동들이 쾌적한 내고장만들기의 지표달성을 위한 실천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구성원이 함께 자기고장을 녹색지역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파괴된 공동체의식을 회복할 수 있어 공동체사회건설에도 기여하게 된다. 21세기의 삶의 질은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사는 정신의 공동체사회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의 실효는 개인의 녹색생활실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마련, 정책결정구조개편, 행정의 운영관례 등의 변화도 뒤따라주어야 한다.

VII. 맺는 말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의식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실천이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인류는 쾌적한 환경과 공동체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삶의 질을 요구한다. 삶의 질의 향상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야한다. 각자가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녹색소비생활실천은 혼자서는 힘들다. 함께 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고 연합체를 통한 큰 운동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새로운 생활대안문화운동으로서의 녹색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시도가 쉬울 수도 있다. 무엇인가 탈출구를 찾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작 위기에 처한 것은 지구가 아니라 인류이다. 이 위기국면에 대한 대처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으로의 전환이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1999년도에 <인간성회복>이라는 주제하에 유엔이 주최하는 NGO세계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때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서 성공한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한다.

그 이유는 1992년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의에서와 지난 6월 뉴욕에서 개최된 〈리우+5〉라는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책협약에 실패한 원인이 바로 남북간의 생산과 소비양식 전환에 따른 견해차이가 극심했기 때문인데 소비를 억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